

## 영어 조건절의 경계억양과 담화해석에서 영어 억양의 역할\*

### Edge Tones of English Conditional Clauses and an Intonational Contribution to Discourse Interpretation

이 주 경\*\* · 공 은 정\*\* · 김 기 호\*\*

Joo-Kyeong Lee · Eunjong Kong · Keeho Kim

####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nner in which various syntactic structures with a single meaning implement a consistent intonational pattern by examining English conditional clauses. In the phonetic experiment, we explore the edge tones in three different syntactic clauses which are semantically interpreted as a single conditional meaning (an *if*-clause, a clause with no *if*, and a clause with no *if* but followed by *and*) and compare them with the edge tone realized in a clause which is not interpreted as a conditional meaning. We also investigate the tonal differences resulting from the semantic difference between conditional and non-conditional meanings. That is, the conditional clauses expressed in three different syntactic structures show a consistent intonational pattern in their clause-final boundaries; a rising contour (H- or H%) is realized at the edge of the intermediate phrases (ip) or intonational phrases (IP) in 89% of the *if*-clauses, 72% of the clauses with no *if*, and 79% of the clauses with no *if* but followed by *and*. On the other hand, 82% of the non-conditional clauses have a falling contour (L- or L-L%) in their final edge. Statistically, Chi-Square tests show that these percentages are all significantly higher, which suggests that a conditional meaning implements a consistent intonational pattern though it is expressed through different syntactic structures. Therefore, the result supports Bolinger's (1989) claim that intonation make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discourse interpretation.

**Keywords** : conditional clause, intermediate phrase, intonational phrase, edge 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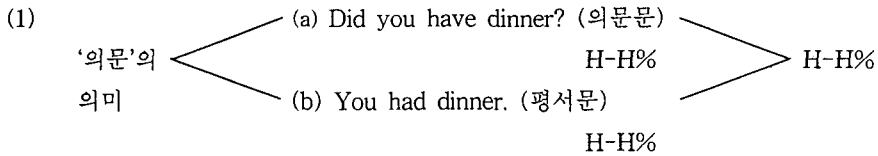
#### 1. 서론

하나의 특정한 접속관계가 다양한 통사구조를 통해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 특정 의미를 구현하는 억양패턴은 일관성을 보인다. 즉, '의문'의 의미가 의문문뿐 아니라 평서문과 같은 통사구조로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문의 의미는 통사구조와 관계없이 상승 경계성조(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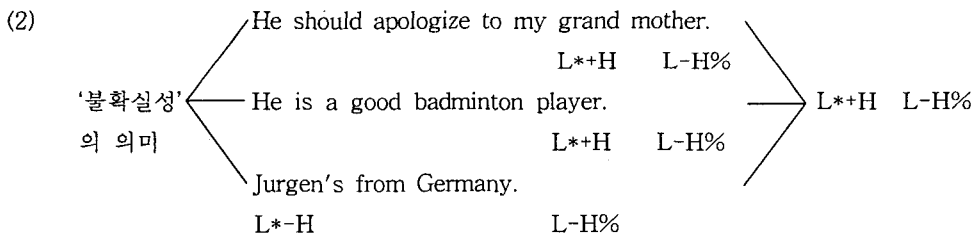
\* 본 논문은 교육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 Brain Korea 21 - 핵심 분야'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임.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tone)를 통해 실현된다(Bolinger 1989). 예를 들면, 다음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나 (b)는 통사구조는 다르지만 같은 '의문'의 뜻을 전달하고 이 동일한 의미는 동일한 경계성조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또한 화자의 특정 태도(attitude)나 감정(emotion)을 화자가 의도한 언어외적인(paralinguistic) 의미로 고려하면, 화자는 자신의 발화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을 일정하게 L\*-H L-H%의 억양 패턴을 만들어 낸다고 기존 연구에서 밝힌 바가 있다(Ladd 1980; Liberman 1975; O'Connor & Arnold 1961; Sag & Liberman 1975; Ward & Hirschberg 1985). 예를 들어 다음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확실성'이라는 의미는 (a), (b), (c)와 같은 다양한 통사구조를 통해 실현될 수 있지만 그 양상은 핵강세(nuclear pitch accent)를 포함한 경계성조가 언제나 L\*-H L-H%'를 보인다. 다시 말해, 불확실성은 발화의 통사구조와 관계없이 하나의 일정한 억양패턴을 가진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통사'-'억양'은 일-다-일(one-multiple-one)의 함수관계를 가지며 '의미'와 '억양'은 일대일(one-to-one)의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는 다양한 통사구조의 조건절로 그 범위를 좁혀, '조건의 의미'가 어떻게 억양을 통해 실현되는지 살펴보고 '조건의 의미'와 '억양'사이의 함수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담화해석에서 영어억양의 역할을 논하고 이에 대한 기존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영어 억양과 의미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는 중간구(intermediate phrase, ip)와 억양구(intonational phrase, IP)를 구성하는 구악센트(phrase accent)와 경계성조(boundary tone)의 유형이 담화에서 문장의 의미관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발화가 억양구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구악센트와 경계성조의 조합에 따라서, 그리고 중간구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구악센트의 유형에 따라 문장내의 접속관계를 드러내주는 일정한 억양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건의 의미를 지닌 다양한 통사구조의 선행절과 뒤따르는 주절과의 의미관계를 규정하는 억양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발화

의 억양구와 중간구의 구약센트와 경계성조를 중심으로 발화 억양패턴을 조사하고 모든 결과는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 2. 가 정

담화에서 억양과 의미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Pierrehumbert & Hirschberg 1990)에 따르면, 영어 억양은 피치약센트(pitch accent)와 구약센트(phrase accent), 경계성조(boundary tones)의 조합을 통해 문장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 구약센트는 H-와 L-로 구성되며 이 두 유형은 중간구(ip)간의 의미 관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즉 앞서 나온 중간구가 다음 중간구와 의미적으로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간구에 H-의 구약센트로 실현된 경우 선행 중간구와 후행 중간구는 의미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L-의 구약센트로 실현된 경우는 이러한 중간구 사이의 의미적인 관련성이 부재함을 뜻한다.

한편, 억양구(IP)에 나타나는 경계 성조는 H%와 L% 구성되며, 경계성조의 유형은 억양구간의 의미 관계를 규정한다. 억양구가 H%는 후행 억양구가 화자의 선행 발화에 의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자는 청자로 하여금 뒤이은 발화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원할 때 사용하며, 반면, L%는 선행 발화가 후행 억양구와 의미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화자가 청자에게 후행 발화에 관심을 요구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

Beckman & Pierrehumbert(1994)에 따르면, 발화는 화자의 의도나 속도에 따라서 휴지나 장음화로 표시되는 억양구를 구성할 수도 있고, 혹은 중간구를 구성할 수도 있다. 화자의 발화속도를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발화속도가 느린 경우는 중간구보다는 억양구의 형성이 더 빈번하다. 억양구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구약센트 H-, L-와 경계성조 H%, L%가 조합되어 억양구의 경계를 나타내는데, L-L%, L-H%, H-L%, H-H%의 네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반면에 중간구만이 형성될 경우에 경계성조는 없고 구약센트 H-과 L-의 두 유형만이 그 경계를 결정한다.

## 3. 실 험

### 3.1 가설

앞서 2. 가정에서 언급한 구약센트와 경계성조의 기능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첫째, 조건절의 의미로 새겨지는 절은 뒤따르는 후속주절과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조건절의 통사구조와 관계없이 중간구에는 H-, 억양구에는 H-이나 H%가 포함된 억양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억양음운론(Pierrehumbert 1980)에 근거하면 후자인 억양구의 경우에는 구약센트 H-와 경계성조 H%가 조합된 세 가지 유형 H-H%, L-H% H-L%이 가능하며, 중간구만이 형성된 경우에는 H-이 기대된다.

둘째, 만약에 선행절이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말해 뒤따르는 후행절과 '조건'이라는 의미적 접속관계가 전혀 없이 독립적일 때에는, 첫 번째 가설에서 기대되는 구약센트 H-와 경계성조 H%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즉, 선행절이 중간구만을 형성한다면 L-의 구약센트가 실현될 것이고, 억양구를 생성한다면 L-L%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 두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조건의 의미를 지니는 선행절은 통사구조와 관계없이, 중간구를 형성할 때에는 H-의 구약센트, 억양구를 형성할 때에는 H-H%, L-H% 혹은 H-L%의 구약센트와 경계성조의 조합을 보인다.

가설2 조건의 의미가 아닌 선행절은 통사구조가 같더라도 중간구를 형성할 경우에는 L-의 구약센트, 억양구를 형성할 경우에는 L-L%의 구약센트와 경계성조의 조합을 보인다.

### 3.2 실험절차

실험에 참여한 영어 원어민 화자는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전혀 없는 총 6명 (K 대학교 소속의 강사 3명, A 대학교 소속의 강사 1명, 그리고 D 대학교 소속의 강사 2명)이었다.

동일한 조건의 의미로 새겨지는 세 가지 통사구조를 지닌 문장과 조건의 의미로 새겨지지 않는 하나의 문장을 합한 4개의 문장을 한 세트(set)로 구성했다. 화자의 자연스런 발화를 이끌어 내고 조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조건의 의미로 새겨지는 세 가지 통사구조의 문장을 위한 문맥 하나와, 조건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문장을 위한 문맥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맥과 실험문장은 실험에 앞서 영어 원어민 화자로부터 의미적으로 적당하다는 동의를 받았다. 다양한 조건문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4가지 서로 다른 조건의 의미 4세트를 만들어, 결국 서로 다른 통사적 구조를 가진 문장은 총 16개, 제시된 문맥은 총 8개였다. 원어민 화자가 실험 의도를 추측할 수 없도록 실험 문장과 문맥을 무작위로 섞어서 제시하였고, 가급적 친구에게 말하듯 자연스럽게 발화하도록 지시하였다. 각각의 화자가 발화한 문장은 64개 (16문장×4회 반복)이며, 따라서 총 실험문장은 모두 384개(16×4회 반복×6화자)였다.

실험 문장은 조용한 녹음실 환경에서 DAT(Digital Audio Tape)에 녹취되었으며, Pitch Work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약센트와 경계성조의 위치와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피치악센트를 살펴보기도 했다.<sup>1)</sup> 억양분석과정은 Pierrehumbert(1980)의 억양음운론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으며, 모든 결과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그 유/무의미성이 검증되었다.

1)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절이 소수의 경우에서 L- 나, L-L%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 조건절의 피치악센트의 유형도 살펴보았다. 이에 관한 논의는 3. 실험결과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 3.3 실험자료

실험 문장에는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는 가능한 절의 유형을 모두 포함시켰다(부록 참조). 따라서 실험 문장은 첫째, 접속사 'if'를 포함한 조건절(a), 둘째, 접속사를 포함하지 않는 조건절(b), 접속사를 포함하지 않고 후행 문장이 'and'로 연결되는 조건절(c)의 세 가지 유형이 포함되었다. 또한, 접속사를 포함하지 않는 조건절(b)와 통사 구조는 같지만 문맥에 의해 후속절과의 의미관계가 조건의 의미로 새겨지지 않는 문장(d)을 포함하였다. (d)문장을 포함한 이유는 조건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문장의 억양패턴을 관찰하고, 조건의 의미를 가진 a, b, c 문장의 억양패턴과 비교함으로써, 세 가지 조건절 a, b, c 유형의 억양 패턴 양상에서 얻은 결과를 뒷받침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문장 세트 하나의 문장은 4 가지 유형을 가지며, 서로 다른 문장 4 개의 세트를 구성하였으므로 총 16 개의 문장이었다.

조건의 접속사 if를 포함하지 않고 조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평서문과 명령문의 통사 구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4 개의 문장 세트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장세트는 명령문의 형식, 두 번째와 네 번째 문장세트는 평서문의 형식으로 각각 만들었다. 다음 (3)은 4 가지 유형으로 분리된 문장세트 중 평서문과 명령문의 세트를 각각 하나씩 발췌한 것이다.

#### (3) 명령문 형식의 문장 세트 (세트 1)

■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

- a. if you try it on you will see what I mean.
- b try it on you will see what I mean.
- c try it on and you will see what I mean.

■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문장

- d try it on I'll be here.

#### 평서문 형식의 문장세트 (세트 2)

■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

- a if they pay them all I won't sue.
- b they pay them all I won't sue.
- c they pay them all and I won't sue.

■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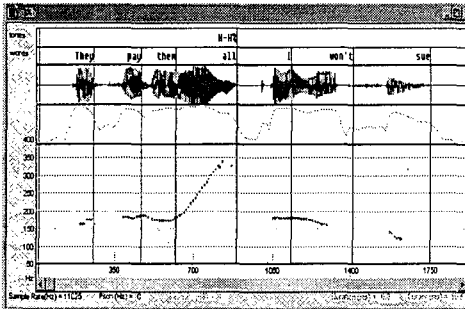
- d they pay them all don't worry about the cost now.

구두점(punctuation marks)이 문장의 의미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화자들에게 주어진 자료에는 쉼표(a, b, c 문장)나 마침표(d 문장)와 같은 구두점을 모두 없애고, 선행절과 후속절을 각각 오려붙인 형식으로 나열하였다. 따라서, 구두점이 삭제된 실험 문장에서 화자가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문맥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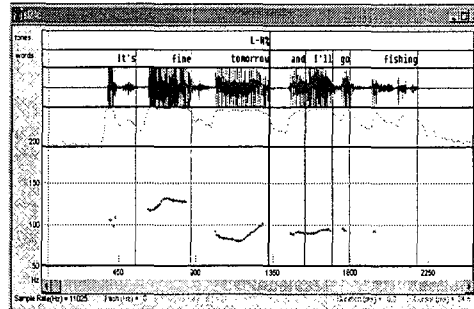
3.4 실험결과

앞서 2.1 가설에서, 조건의 의미로 새겨지는 다양한 통사의 문장 a, b, c와 같은 경우의 선행절에는 H-H%, L-H%, H-L%,의 억양구 억양패턴을 형성하거나 H-의 중간구 억양이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조건의 의미로 새겨지지 않는 d 문장유형에서 선행절에는 L-L%의 억양구 억양패턴이나 L-의 중간구 억양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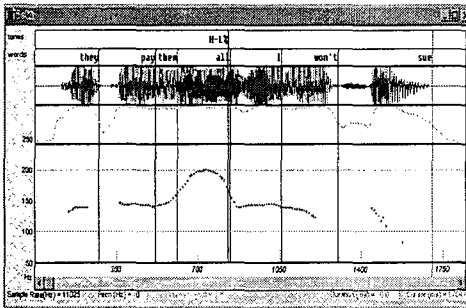
실험 결과, 6 명의 화자 모두는 발화 속도에 따라 선행절을 억양구로 구성하기도 하고 중간구만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는 a, b, c 문장은 대부분 H-H%, L-H%, H-L%의 억양구 경계성조나 H- 중간구의 구약센트를 보였는데 그 피치곡선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H-H%, (b) L-H%와 (d) H- 성조는 상승의 경계억양이며 (c) H-L%의 성조는 유지(sustain)되는 경계억양이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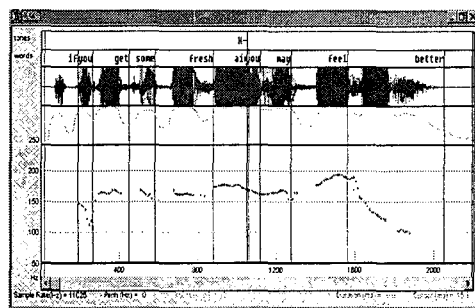
(a) They pay them all I won't sue  
H-H%



(b) It's fine tomorrow and I'll go fishing  
L-H%



(c) They pay them all I won't sue  
H-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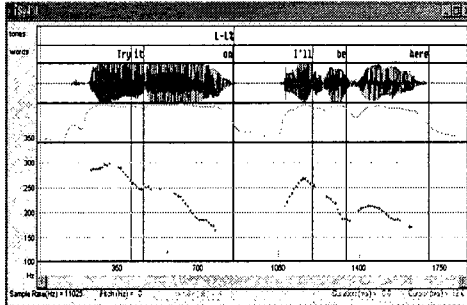
(d) Get some fresh air you may feel better  
H-

그림 1. 조건절에 나타나는 H-H%, L-H%, H-L%, H- 억양패턴의 예(각각 DK, LK, ScS, TS의 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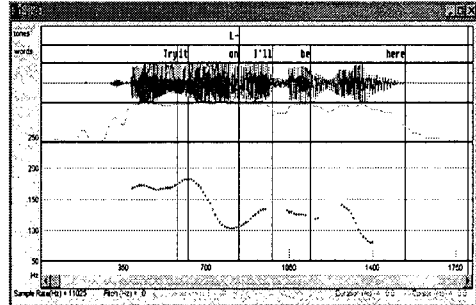
조건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선행절에서는 대부분 L-L%, L-의 경계억양을 보였으며, 그림 2에서 이에 대한 피치곡선을 보여준다. 억양구이든 중간구이든 (a) L-L%, (b) L-는 모두 하

2) 억양전사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http://ling.ohio-state.edu/phonetics/ToBI/ToBI.6.html> 참고.

강하는 억양이다.



(a) Try it on I'll be here  
L-L%



(b) Try it on I'll be here  
L-

그림 2. 조건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절의 L-L%, L- 억양 패턴의 예(각각 SS, ScS의 발화)

그림 3은 6 명의 화자 각각이 64 회 발화문장 중 억양패턴이 문장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왼쪽의 막대는 if를 포함한 문장의 경계에 나타난 억양패턴을 나타내며(a 유형의 절), 두 번째와 세 번째 막대는 각각 조건의 의미를 가지지만 if라는 어휘가 없는 경우(b 유형의 절)와, if는 없지만 대신 접속사 and로 연결된 절(c 유형의 절)의 경우의 억양패턴을 보여준다. 마지막 네 번째 막대는 통사구조는 b와 같지만 조건의 의미가 아닌 경우의 절(d 유형의 절)의 경계에 나타난 억양패턴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막대의 위 구역이 H-H%, L-H%, H-L% 또는 H-이 해당하는 부분으로 세 가지 유형의 조건절 a, b, c의 경우 가설과 일치하는 영역이며, 아래 구역이 L-L%, 또는 L-이 해당하는 부분으로 조건의 의미로 연결되지 않는 선행절 d의 경우 가설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먼저 화자 TS의 경우는 a 유형의 절 16 개 중 16 개 모두(100%)가 H-이나 H%가 포함된 상승되거나 유지되는 억양패턴, 즉 H-H%, L-H%, H-L% 또는 H-의 경계억양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조건의 의미로 새겨지는 b와 c 유형의 조건절도 88%, 94%으로 각각 상승 또는 유지되는 억양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은 선행절(d)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L-L% 또는 L-의 하강의 경계억양이 8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선행절이 조건의 의미로 연결되는 a, b, c 유형에서 H-H%, L-H%, H-L% 또는 H-의 패턴이 나타나는 비율과 L-L% 또는 L-의 패턴이 나타나는 비율을 비교하였는데 96%(46/48 문장)과 4%(2/48 문장)으로 이들의 차이는 Chi-Square test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chi^2 = 40.333$ ,  $df = 1$ ,  $p < 0.0005$ ).

화자 ScS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는데, 첫 번째 막대에서 볼 수 있듯이 if라는 어휘가 들어간 조건절의 경우는 94%의 경우가 H-H%, L-H%, H-L% 또는 H-의 성조로 나타났으며, if나 and로 연결되지 않는 조건절의 경우에도 81%, 접속사 and로 연결된 조건절의 경우 81%가 H-H%, L-H%, H-L% 또는 H-의 상승 또는 유지되는 경계억양을 보였다. 그러나 조건의 의미가 아닌 절의 네 번째 막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88%가 L-L% 또는 L-의 하

강 패턴을 보였다. 이중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는 선행절 *a*, *b*, *c*를 모두 합해 상승 또는 유지되는 성조와 하강성조와의 비율을 계산하였다니 91%(43/48 문장)과 9%(5/48 문장)로 9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음을 알 수 있었다( $\chi^2 = 30.083$ ,  $df = 1$ ,  $p < 0.0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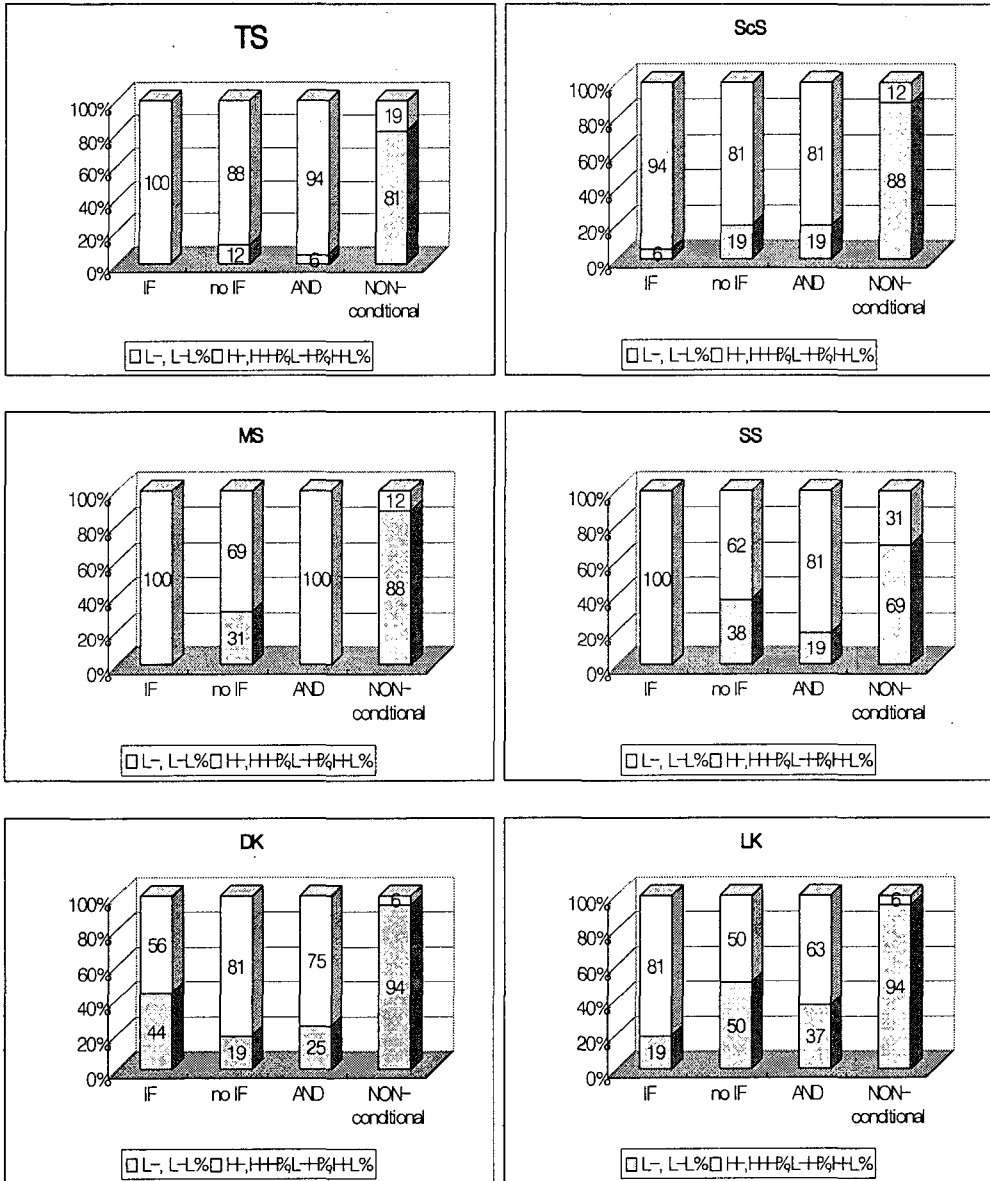


그림 3. 화자에 따른 문장유형별 경계성조 분포



화자 MS와 SS의 경우도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는 서로 다른 통사구조의 경계역양은 각각 100%, 69%, 100%(MS)와 100%, 62%, 81%(SS)로서 대부분 H-H%, L-H%, H-L% 또는 H-이며 조건의 의미가 아닌 절의 경우는 L-L% 또는 L-가 88%(MS)와 69%(SS)로써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조건절 유형 *a*, *b*, *c*를 모두 합해 상승 또는 유지되는 억양과 하강하는 억양을 비교하였더니 화자 MS의 경우 92%(44/48 문장)가 상승/유지패턴으로 8%(4/48) 하강패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음이 드러났으며( $\chi^2 = 33.333$ ,  $df = 1$ ,  $p < 0.0005$ ), 마찬가지로 화자 SS의 경우도 81%(39/48 문장)이 상승/유지되는 패턴으로 9%(9/48)의 하강패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음이 드러났다( $\chi^2 = 18.75$ ,  $df = 1$ ,  $p < 0.0005$ ).

화자 DK와 LK의 경우는 앞선 4명의 화자만큼 H-H%, L-H%, H-L% 또는 H-의 비율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DK의 경우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는 *a*, *b*, *c* 유형은 각각 56%, 81%, 75%이며 LK의 경우 81%, 50%, 63%. 그러나 조건의 의미로 연결되지 않는 *d* 유형의 절에서는 여전히 L-L%나 L- 경계역양이 두 화자 모두 94%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화자 DK와 LK의 경우 비록 조건절의 경계역양이 상승이나 유지되는 패턴이 다른 화자들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a*, *b*, *c*의 조건절 모두를 합해 하강하는 억양패턴과의 그 비율을 살펴보았더니 통계적으로 H-H%, L-H%, H-L% 또는 H-의 억양이 L-L%나 L-의 억양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즉, DK의 경우 71% (34/48)와 29%(14/48)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chi^2 = 8.333$ ,  $df = 1$ ,  $p < 0.005$ ), LK의 경우 68%(32/47)와 32%(15/47)의 차이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 = 6.149$ ,  $df = 1$ ,  $p < 0.05$ ).

그림 4는 6명의 화자의 결과를 모두 합한 것으로서, 접속사 'if'를 포함한 *a* 문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발화 문장 96(16문장×6명)중 87개(약 91%)가 선행절의 경계에서 H-H%, L-H%, H-L% 또는 H- 성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L-L% 나 L-로 나타난 9%의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을 Chi-Square test를 통해 나타났다( $\chi^2 = 63.375$ ,  $df = 1$ ,  $p < 0.0005$ ).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막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접속사 if를 포함하지 않는 *b*유형의 선행절에는 74%(70/95 문장)가, 접속사를 포함하지 않고 후행 문장과 'and'로 연결되는 *c*문장은 84%(81/96 문장)가 각각의 선행절 경계에서 H-H%, L-H%, H-L% 또는 H-의 상승되거나 유지되는 억양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율은 각각 26%(25/95)와 16%(15/96)의 하강하는 패턴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이 밝혀졌다(*b*유형의 경우,  $\chi^2 = 21.316$ ,  $df = 1$ ,  $p < 0.0005$ ; *c*유형의 경우,  $\chi^2 = 43.375$ ,  $df = 1$ ,  $p < 0.0005$ ). 이와는 반대로, 조건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d* 유형의 선행절일 때에는 약 84%(81/96 문장)가 기본주파수가 하강하는 L-L% 나 L-의 억양패턴임을 보여준다. 이것도 역시 H-H%, L-H%, H-L% 또는 H-의 상승되거나 유지되는 억양패턴에 해당하는 1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이 밝혀졌다( $\chi^2 = 43.375$ ,  $df = 1$ ,  $p < 0.0005$ ).

전체 화자의 실험문장을 모두 합하여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는 *a*, *b*, *c* 유형의 선행절 287개에서 H-H%, L-H%, H-L% 또는 H-과 L-L% 나 L-의 두 경우를 비교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83%(238/287문장)와 후자의 경우 17%(49/28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조건의 의미를 지닌 절에는 상승이나 유지되는 억양패턴을 일반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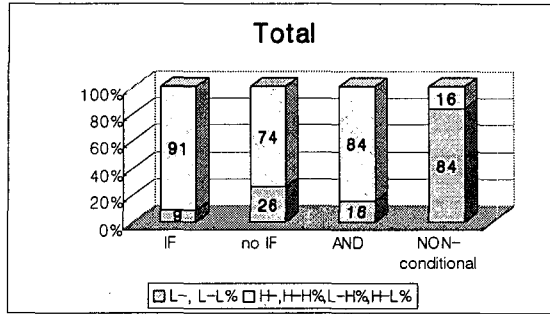


그림 4. 전체 화자의 문장 유형별 성조 분포

실험 결과에 따르면, 6 명의 화자는 모두 조건의 의미를 지닌 선행절을 통사구조와 관계 없이 일정하게 경계성조를 상승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억양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행절이 후속주절과의 의미적 관계에서 조건으로 해석되지 않는 문장의 경우에는 선행절의 경계성조가 대부분 하강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결과는 앞서 세운 가설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 3.5 논의

조건으로 해석되는 선행절이 통사구조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에 일관된 상승/유지하는 억양패턴을 보이는 반면, 조건의 의미로 새겨지지 않는 절의 경계에 하강하는 억양패턴이 나타나는 실험결과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 첫째, *a*, *b*, *c* 조건절 경계의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억양패턴은 결국 조건의 의미가 유효해 낸 것이다. 둘째, 화자는 조건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할 때, 후속하는 주절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청자에게 억양을 통하여 암시하기 위하여 H-이나 H%으로 구성된 경계억양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통사구조가 다양한 상황에서도 억양은 의사 소통을 돕기 위해 결정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험 결과에서 접속관계를 나타내는 어휘의 존재여부와 경계에 나타난 억양과의 흥미로운 관계를 발견하였다. Bolinger(1989)는 조건의 접속사 *if*나 혹은 조건의 의미를 암시하는 어휘적이 단서가 문장에 존재할 때, 조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억양에 의존도가 작아지므로, 조건절 경계에 상승이나 유지되는 억양뿐만 아니라 하강하는 억양이 실현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의미가 전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조건절에 접속사 *if*와 같은 직접적인 어휘적 단서가 있을 때에는 억양이 발화의 의미전달에 기여하는 정도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if*와 같은 어휘적 단서가 조건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때, 어휘적 단서가 없는 조건절의 경우보다 그 조건절 경계에 하강하는 패턴이 도입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만약, 조건의 의미를 직접 전달하는 어휘인 접속사 *if*가 있을 때나, 또 조건의 의미는 아니지만 뒤따르는 후속주절과의 의미적 관련성을 시사하는 접속사 *and*와 같은 어휘적 단서가 존재하는 경우의 조건절에 그러한 어휘가 포함되지 않는 조건절보다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억양이 덜 나타난다면 이는 억양이 의미전달을 위해 어휘의 역할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됨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Bolinger의 직관(intuition)을 검증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 사용된 조건의 의미를 지니는 *a*, *b*, *c* 유형의 조건절의 경계에 나타난 L-L%와 L-로 나타난 하강 억양패턴의 수를 조사하였다. 조건의 접속사 *if*가 어휘적인 단서로서 문장에 드러난 *a* 유형의 절은 총 96 개의 발화 가운데(4 세트×6 명×4 회 반복) 9 개의 경우만이 경계억양이 하강하는 억양으로 실현되었다. 조건의 접속사 *if*는 없으나, 후행 발화가 시작되기 전에 접속사 'and'를 삽입하여 어휘적으로 후행 발화를 보조하는 경우의 *c* 유형의 절은 총 96 개의 발화 가운데 15 개의 경우에서 경계억양이 하강하는 억양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조건의 의미를 보조해 줄 어떠한 어휘적인 단서도 없는 *b* 유형의 절의 경우 총 96 개의 발화 가운데 25 개의 경우에서 경계억양이 하강하는 패턴을 보였다. 다시 말해, 어휘적 단서가 전혀 없는 조건절이 *if*나 *and*와 같은 어휘적 단서가 있는 조건절보다 더 많은 경우에서 하강하는 억양을 보였다. 또한 어휘와 억양과의 관계를 화자별로 살펴보았는데(그림 3. 참조), 한 명의 화자(DK)를 제외한 5 명의 화자가 조건의 의미를 전달할 뚜렷한 어휘적인 단서가 없는 *b* 유형에서 가장 많은 하강억양을 조건절의 경계에 사용하였으며, 조건의 접속사 *if*를 포함하는 *a* 유형에서 경계성조로서 하강억양을 도입하는 경우가 가장 적었다.

본 실험결과에서는 조건의 의미를 지니는 조건절 가운데, 어휘적으로 조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절의 경우 그렇지 않은 절보다 하강 억양이 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휘와 억양과의 관계에 대한 Bolinger의 견해와 상반된 양상이다. 다시 말해, 발화의 의미해석에 있어 접속관계를 나타내는 어휘적 단서의 존재와 억양 의존도는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어휘가 억양을 만들어낸다고 시사한다.

실험 결과에서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20% 내외의 예외적 억양패턴도 일관된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조건의 의미를 전달하지만 화자가 조건절 경계에 L-L% 혹은 L-의 하강하는 성조를 사용하여 발화한 절에서 피치악센트의 F0가 차례로 하강하는 단계하강(downstep)이 드러나거나(17/49 문장), 억양구 마지막의 내용어(content word)의 피치악센트가 해지(deaccenting)되는 경우(22/49 문장)가 많았다.(그림 5. 참조) 이는 화자가 조건절 경계에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억양을 도입함으로써 청자에게 후행 발화에 대한 기대를 주는 대신 단계하강이나 악센트 해지와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자로 하여금 후행 발화를 기대하게 하는 화자의 의도와 단계하강이나 악센트 해지와 같은 이차적 전략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관한 논의가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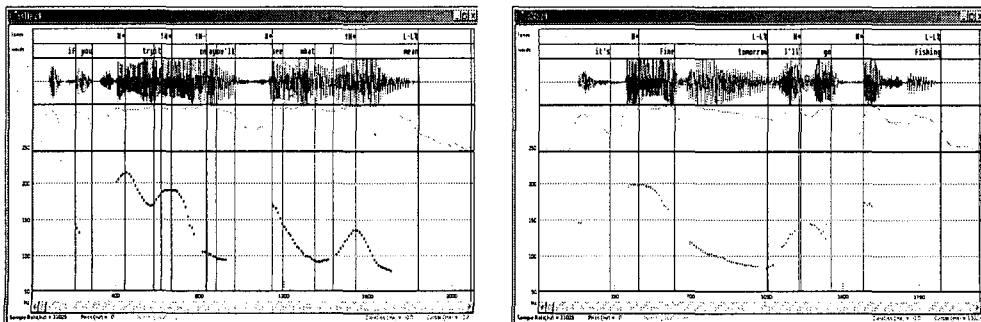


그림 5. 단계하강(downstep)과 피치악센트 해지현상(Deaccenting)(각각 ScS, DK의 발화)

## 4. 결 론

본 논문은 담화에서 접속관계가 규정될 때 통사구조와 관계없이 억양은 일관된 패턴으로 그 접속관계에 대한 의미를 전달함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화자는 조건의 의미가 내재된 선행절의 경계성조를 상승이나 유지 억양을 사용하여 조건의 의미를 새기며, 반면에 조건의 의미가 없는 절의 경우 하강억양을 사용한다. 조건의 의미가 없는 절의 억양이 하강억양으로 일관되게 실현된다는 경향은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통사의 문장과 비교해 볼 때, 상승, 혹은 유지되는 억양이 조건의 의미로 인하여 유발된 것임을 말해준다.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절이 'if' 어휘의 존재나 'and' 접속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또 평서문(statement)이나 명령문(imperative)의 통사구조와 관계없이 구약센트나 경계성조는 일관된 억양패턴을 보이며, 반면에 같은 통사구조이지만 후행 주절과는 의미적으로 독립되어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때에는 이와는 대조적 억양패턴을 보인다. 그렇다면 화자는 통사구조에 관계없이 의사소통을 위해 억양에 상당히 의존하며, 더 나아가 억양이 의미해석에 기여하는 결정적 단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 참 고 문 헌

- 김기호. 1999. *담화에서의 억양과 의미와의 관계: 영어 억양을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여름 특강 ms.
- Beckman, M. & J. B. Pierrehumbert. 1994. "Intonational Structure in Japanese and English," *Phonology Yearbook 3*, pp. 15-70.
- Beckman, M & J. Hirschberg. 1998. The ToBI Annotation Conventions. <http://ling.ohio-state.edu/phonetics/ToBI/ToBI.6.html>
- Ladd, D. Robert. 1986. "Intonational phrasing: the case for recursive prosodic structure" *Phonology Yearbook 2*, pp. 311-340.
- Ladd, D. Robert. 1996. *Intonational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linger, Dwight. 1989. *Intonation and its use; melody in grammar and discourse*. Stanford University Press.
- Pierrehumbert, J. B. & J. Hirschberg.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in P. R. Cohen, J. Moregan, & M.E. Pollock(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Cambridge, MA:MIT Press*, pp. 271-311.

접수일자: 2001. 4. 29.

게재결정: 2001. 5. 29.

## ▲ 이주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우편번호: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jookyeong@hotmail.com

▲ 공은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우편번호: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mensonage@hotmail.com

▲ 김기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우편번호: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keehokim@korea.ac.kr

## 부 록

## 실험문장과 문맥

## situation 1-1

A: This shape of shoes makes your feet unimaginably comfortable.  
 B: Are you sure?  
 A:

- 1-a if you try it on you will see what I mean.  
 1-b try it on you will see what I mean.  
 1-c try it on and you will see what I mean.

## situation 1-2

A: I'm going to the fitting room. Are you going to look around the mall?  
 B:

- 1-d try it on I'll be here.

## situation 2-1

A: Calm down. You must be angry at their irresponsible answer.  
 B:

- 2-a if they pay them all I don't sue.  
 2-b they pay them all I don't sue.  
 2-c they pay them all and I don't sue.

## situation 2-2

A: If we park here, we may get tickets.  
 B:

- 2-d they pay them all don't worry about the price now.

## situation 3-1

A: I have been focusing on the math problem for five hours. So, I have a serious headache now.  
 B:

- 3-a if you get some fresh air you may feel better.
- 3-b get some fresh air you may feel better.
- 3-c get some fresh air and you may feel better.

**situation 3-2**

A: I don't know why I'm so dizzy like this.  
B:

- 3-d get some fresh air it's too stuffy here.

**situation 4-1**

A: We should finish this work today, but I want go swimming.  
B:

- 4-a if it's fine tomorrow I will go fishing.
- 4-b it's fine tomorrow I will go fishing.
- 4-c it's fine tomorrow and I will go fishing.

**situation 4-2**

A: I'm worrying that the weather prevents us from going on a hiking.  
B:

- 4-d it's fine tomorrow you should trust me.